

시간: 12:25am - 3:20pm

본문: 계 20:1 - 3

주제: **사탄의 멸망**

주일 말씀을 들어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생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육계의 모든 여건과 싸워 그 한 주도 지탱해 나갈 수 있다. 사탄도 설교를 하고 작전을 짠다. 사탄은 언제 설교를 할 것 같으냐? 우리보다 먼저 할까? 아니면 우리보다 나중에 할까? 사탄은 심방을 두번 다닌다. 우리가 가기 전에 심방가고, 우리가 갔다온 후 심방을 또 간다. 사탄들도 귀신들도 발바닥이 부르르도록 심방을 다니며 자기 백성을 관리한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교인들만 관리하지만 그 애들은 집집마다 심방을 다닌다. 일개 골짜기 오두막살이 집까지 뒹빈다. 사탄과 귀신들은 본격적으로 메주 밟듯이 밟고 다닌다. 내가 그것을 보고 부터 신앙이 달라졌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내려와서는 전도하러 다녔다. 흑암의 세계에 주관을 받는 것은 본인이 서지 못해서이다. 본인이 섰을 때 흑암이 마음을 접어버린다.

#### <지난 주 말씀 상고>

... 지난 주에는 복음으로 맺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일반적인 세계는 가다가 인연이 끊어질 수 있으나 복음은 끝이없기에 영원하다. 말씀이 끊어지면 백성이 방자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보내고 끊었던 무선지 시대가 있었던 것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기 싫을 때 그러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덴에서부터 말씀을 주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권위있게 못보고, 말씀을 하나님을 보듯 보지않으면 사탄의 주관을 받는다. 여러분은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인격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를 찾게 되었다.

애인 사이도 제자 사이도 말이 없으면 힘이 없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내가 말을 안하면 따라 다니는 여러분이 힘이 없을 것이다. 말씀이 나가야 신바람이 나는 것이다. 말씀바람이 신바람이다. 꼭 이렇게 설교의 말씀만 들어야 신바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 나가는 말씀도 신바람을 일으킨다. 그런데 말을 하면 말의 권위를 살려줘야 한다. 또 말 하는 자는 말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내 말의 권위를 살려주면 그 만큼 내가 인정을 해준다! 내 말을 지켜주면 하늘의 시간을 내어준다. 나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말을 하고서 어떻게 움직이나 쳐다본다.

**말씀의 복음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내 말 좀 귀히 여기라는 것이다. 곧 내 말씀의 지켜달라는 것이다.**

## 〈금주 말씀 상고〉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반대 현상을 일으켜 놓고 간다. 창세기부터 보면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했다.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마음이 변하면 선생님과 관계를 거부반응 일으킨다.

본문에 나오는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으로 유다서 1장 6절에서 보듯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한다. 루시퍼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활동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는 그러한 영적세계를 밝히셨다. 영적세계를 내어놓지 않고는 성경말씀의 답을 내어놓을 수 없다. 구약에서는 겉 얘기만 계속했다. 신약에 와서 속 얘기를 했다.

타락한 천사를 두고 뱀이라 하고 마귀라 했는데 그렇다고 천사가 뱀같은 얼굴이 아니고, 마귀같이 뿔이 난 것도 아니다. 나쁘다고 뿔이 나는 것이 아니다. 비유로 표현할 뿐이다.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면 뿔이 났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타락한 천사를 귀신 마귀 괴물로 말하고 각종 나쁜 것으로 표현했다.

사탄이 오면 별로 표가 안난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긴 것이 별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다. 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더 멋있게 하고 다닌다. 단 그 하는 것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닐 뿐이다.

사탄은 철수하라고 말한다고 그냥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자신이 사탄을 구분하고, 사탄이 용납할 수 있는 여건을 안줘야 철수한다. 사탄의 깊은 비밀은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자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가르쳐 준다. 그렇지 않은 자는 보낸자를 믿지 않기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세상 뒤집히는 얘기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고 사탄의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는데 뱀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천사를 두고 말한 것이다. 천사는 지혜롭다.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기에 사탄도 아주 지혜롭다. 사탄이 지혜롭기에 사람을 꾀며 다니는 것이다. 지혜가 없으면 존재를 못한다. 그 지혜에다 하늘 지혜를 더 하면 사탄들을 깔아 뭉갤 수 있다. 타락한 천사, 마귀들 만큼도 지혜가 없으면 안된다.

우리 애들을 보면 지혜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다. 나를 만날 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결혼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나를 삶을 때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를 받아라!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이다! 자기 머리 사용하면 무지이다. 그런데 또 자기 머리로 사용할 것을 물어보면 그것도 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항상 생각을 해야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 애들을 보면 눈치는 빠르는데 눈치를 잘 채지 못하더라.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 수학은 수학을 해석한다. 남자는 남자를 설명한다. 문제도 성경, 답도 성경인데 답 찾으러 뭘 돌아다니냐? 성경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옛 뱀은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보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으로 천사가 심판을 받은 것이었다. 이것들이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가면 흔들여 놓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흔들여 놓고 간다. 신약 기간 2,000년 동안 오직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사탄들이 묶임바 되었다. 하늘 사상에 의한 자기 주관을 확실히 세우면 사탄이 못들어온다. 말씀을 안믿으면 사탄이 금방 들어온다. 죄도 계명을 타고 온다. 지키면 의, 안지키면 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움직여 나간다!! 최대의 도의 경지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지 못한다. 하늘의 응답은 은은한 중에 깨달음이 온다. 은은함을 더 강하게 받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풍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온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으리라.

절대 말씀 믿고, 시대 보낸자를 철저히 목숨을 걸고 믿어야 사탄이 간한다! 본인들이 조건을 세워야 한다. 사탄을 가둘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 시대의 보낸자를 믿고 그의 말씀을 행하면 조건이 제출돼서 그들을 가둘 수 있다. 사탄을 시원찮게 가두면 빼집고 나온다. 단단히 가두라!! 너희는 사탄의 계교, 깊은 것을 모르는구나. 속이고 사기치는 것도 수천가지이다.

이 시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사탄이 자동적으로 갈려나간다. 그 말씀은 빛이기에 흑암은 자동적으로 갈려나간다. 천년동안 본인이 기준을 못세우면 안된다. 사탄은 조건을 통해서 건드린다. 그냥 건드리면 하나님이 모가지지를 비튼다.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 하나님께 잘못보이면 항상 바람이 일어난다.

영토는 가만히 있으면 넓힐 수 없다. 섭리도 바둑 두듯이 도급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사탄편에 섰나 어떠한가 보라! 말씀을 절대 믿고 나를 절대 믿으면 사탄과 갈려있는 것이다. 하늘 권위를 못세워주면 안된다. 사탄이 계속 자기 백성을 모아 하늘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제 군사가 많아졌으므로 초창기 때처럼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격해도 충분히 때려부술 수 있다.

믿음으로 사탄이 자동적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사탄을 가두고 묶은 우리들이 할 일은 이제 부지런히 공적을 세우며 업적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에게 상징적 말씀과 실질적인 말씀을 밝혔으니 믿음도 상징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보다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데는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된다. 완성되면 손 댈 것이 없다. 미완성이기에 자꾸 손을 대는 것이다. 월명동에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완공된 것은 한군데도 없다. 앞산에 앞으로 돌 조경을 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공사이다.

신앙도 완공되었다 하지마라. 계속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고 기뻐할 수 없다. 신앙도 더 깊은 단계로 닦아가라! 늦게 만들수록 손해간다. 빨리 개발하고 빨리 만들수록 유익이다. 우리 심령의 작품은 손댈 것이 많고 만들 것이 많다. 자기를 이상적으로 만들수록 기쁘다. 여러분 신앙도 자꾸 손을 대야한다. 1천년 동안 육적작품뿐만 아니라 영적작품에도 손을 대야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그렇게 되면 천국의 자민권이 된다. 하나님은 답답한 자와 안산다.

의심하면 사탄이 들어온다. 사탄은 창조목적을 극적으로 방해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오직 사탄과의 싸움이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사탄 만큼은 가두고서 다시는 내어놓지 말아야 한다. 금주의 주제는 **사탄의 멸망**으로 붙였다. 사탄의 멸망은 그 시대가 와야된다. 우리가 시대의 말씀을 믿고 보낸자를 믿음으로 조건을 세우니 사탄의 계교를 깨어부수게 되었다. 이제 창세기의 근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항상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고 깨어부수며 공적을 세우자!!

#### <기 도>

오늘 우리에게 찰거머리 같은 흑암을 제거시킨 것을 재인식시켜 주셨습니다. 내 말 믿고 나 보낸자 믿어야 사탄을 물리치고 마음의 천국과 실상의 천국을 이루며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되어 흑암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연의 백성이 되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